치욕의 역사, 되찾아야 할 민족정기

독자투고 — 임종국씨의 '실록 친일파'를 읽고

Ⅰ.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한민족이라는 단어에서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우리 세대의 느낌은 '우수한 단일민족'이라는 말일 것이다. 초등교육에서부터 우리들은 '우리민족은 우수한 단일민족이다'라는 명제하에 오랜 교육을 받아왔다.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의 한민족', 듣기만 해도 이 얼마나 가슴 부푸는 말인가?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인가?

그러나 그토록 우수하다는 우리민족의 현실을 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국토가 철조망에 허리 잘려 고통속에 신음하며 보낸 세월이 반세기가 가까와 온다. 역사상 수 백 회의 외침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온 이 땅위에서 같은 핏줄의 형제끼리 가슴에 총부리를 겨루고 있다.

우리민족이 겪고 있는 이 치욕적인 역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흔히들 전후 동·서 냉전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좁은 땅 위에서 동·서 세력의 힘겨루기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이다. 그리고 개인적 영화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강점 35년간 일제와 부화뇌동하여 민족의 골수를 빨아먹은 친일 반역자 때문이다.

민족적 자긍심은 꿋꿋한 민족정기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가 저속한 외래문화의 홍수에 휩쓸리고, 과거의 뼈를 깎는 고통의 역사를 망각하고, 민족적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꿋꿋이 살아 있어야 할 민족정기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자 임종국 선생은 말한다.

"우리가 통일없이 살 수 없다는 한다면 그 전제인 일제 잔재의 청산과 정기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존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친일은 이제의 문제였고, 또한 한 시대의 민족 비극이었다. 하지만 민족의 정기는 오늘의, 또한 내일의 문제이며 민족의 생존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친일의 민족사적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왜색의 청산과 정기의 확립을 높이 부르짖는 이유의 전부일 뿐인 것이다."

지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는 말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라고 그러나 현재는 과거가 잉태한 것이며, 또한 미래는 현재에 의해 잉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과거는 과거로만 끝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근·현대사가 치욕의 역사, 고통의 역사라고 하여 외면할 수는 없다. 외면하면 외면할 수록 우리는 그 치욕의 역사의 질곡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임종국 선생이 오랜 세월 외롭게 친일파의 행보에 대한 연구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비록 들추어 내고 싶지 않은 치욕의 역사이지만 삶을 헤집고 들추어 그 종기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에서 썩고 말 우리의 역사가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뉫게나마 굴절된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자 주장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 진다.

역사는 순환한다.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을 느낄 수 있다. 자국 군대를 외국에 파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자신들의 헌법이 있음에도 지금 일본은 국제평화유지라는 미명하에 자위대를 해외파병했다. 1910년의 국치가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완용·송병준·이용구·송병기보다 더한 민족반역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극일을 위해서라도 치욕의 역사일 뿐임 그것을 망각 할 수 없는 것이다. 치욕의 역사이기에 더욱 망각할 수 없는 것이다.

Ⅱ. 제2의 애국 반민법

8·15 광복으로 일본 식민통치의 질곡에서 해방된 우리 민족에게 특파된 시급한 당면 과제는 일제의 간악한 정책으로 말살되었던 민족정기를 회생시키는 것이었다. 일제 식민통치는 우리민족의 골수에까지 깊은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주구로 날뛰었던 경찰·지식인·관공리들은 미군정의 비호 아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지배의 위치를 구축해 나갔다. 이 시기에 정치적·사회적 세력을 구축한 민족 반역자 친일파들은 이후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초래한 가장 큰 원흉이라고 할 수 있다.

1948년 헌법 제정 후의 제헌국회는 제정헌법 제101조의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 기초작업에 착수한다. 기초법안은 몇 차례의 수정 끝에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되고 9월22일 대통령 이승만에 의하여 공포된다. 이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구성되고 보조기관도 구성된다. 이러한 반민특위의 성립과정에서도 친일파 세력들은 집요하므로써 신국가의 새질서를 세우려 했던 시대적 요청은 반민특위의 와해로 무산되고 만다. 이 반민특위의 활동만 훌륭히 전개되었다면 아니 이승만의 암해공작만 없었더라도 민족정기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은 달성 되었을 것이다.

반민특위의 와해는 우리민족 역사의 정도를 깎아 놓았고 해방 반세기동안 훌륭성장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형성하여 정의의 존재마저도 의심케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조장한 것이다.

Ⅳ. 오늘의 우리사회

매국의 일등공신(?)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은 일제하에서 동요회를 조직하여 그 회의 이사장에 있으면서 반민족행위를 일삼았다. 대를 이어 반민족행위의 최전방에서 일제와 주구 노릇을 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신문(동아일보 92. 10. 1)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목도하게 되었다. 동요회 이사장 이병길의 아들,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이라는 자가 과거 매국의 대가로 일제가 이완용에게 준 토지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몇 건의 소송에서는 승소하여 일부 토지를 돌려받게 되었다고 한다.

◇ 반민특위의 와해로 친일파 숙청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나는 법을 배운다. 실정법상 일정한 요건만 구비되면 권리를 주장하여 이를 회복할 수 있다.

그 이윤형이라는 자가 몇 건의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정치의 실현이라는 법의 이념에 회의를 느꼈다. 나는 생각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법만으로는 정의를 완전히 실현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 이외에 무엇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민족의식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해방이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결호의 기회를 놓쳤고, 이에 친일파들은 우리 사회의 확고한 지배적 위치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법의 이념은 제대로 달성될 수 없고 오늘날 위와 같은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쏟아져 들어오는 일본상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일본잡지의 홍내나 내는 젊은이들, 어쩌면 이 모든 현상들이 민족의식, 역사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현실과 미래 역사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불행했던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민족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투철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김 상 우
〈법학·2〉

반민특위 와해… 사회구조 모순의 시발점

친일파 실태·인맥 추적한 노력의 결실

그렇다!

민족의 정기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과거보다는 현재에서, 또 현재보다는 미래에서 더 중요한 정신이다.

Ⅱ. 망각할 수 없는 역사

'실록 친일파'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대사를 초래한 반민족 친일파의 행태를 1876년 2월27일 강화도조약 이래 일제하를 거쳐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자들의 실태와 인맥을 기록한 글이다. 임종국 선생의 '실록 친일파'중 제2부 '해방이후의 친일파' 부분은 한길사에서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실려있다.

몇년전 '해방전후사의 인식' 중 '해방이후의 친일파' 부분을 읽으면서 후안무치한 반민족 친일파의 행태에 분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요즘 다시 '실록 친일파'를 읽고 임종국 선생의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적 정기를 바로 잡으려는 고결한 의지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적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우선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국가 창설의 의의는 희석되고 마는 것이다.

민족정기를 회생시키는 당면과제는 일제의 통치하에서 민족의식을 말각하고 사적인 영화만을 위하여 민족을 팔았거나 아부, 협력했던 민족 반역자·친일파들을 민주적 신질서를 건설하려는 역사적 요청에 따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적 요청은 해방 이후 미군정 당국의 회의적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건국 이후에야 착수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그들의 점령정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제통치하의 공직자들을 그대로 현직에 앉혀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일제 통치하에서 자성하기는 커녕 반민특위의 와해를 기도한다.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행위는 반민특위의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김구의 임정세력과 김성수를 비롯한 국내파에 비해 열악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과거 친일관료들을 정부의 요직에 기용한다. '실록 친일파'의 내용중 제1공화국 각료중 실질 영 임원 96명 가운데 친일 전력자가 31.3%로 30명이나 된다는 것은 이승만의 반국가적 행위를 잘 말해준다.

반민특위의 활동으로 인한 친일파의 위기의식과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장하려는 이승만의 그릇된 정치적 야욕으로 인해 반민특위는 와해되고 만다. 친일파들의 숙청작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민족반역자·친일파들을 태제·숙청하기는 커녕 반민특위의 와해를 기도한다.

이승만의 행위는 반민족행위를 일삼았다. 대를 이어 반민족행위의 최전방에서 일제와 주구 노릇을 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신문(동아일보 92. 10. 1)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목도하게 되었다. 동요회 이사장 이병길의 아들,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이라는 자가 과거 매국의 대가로 일제가

백기완 민중후보 공식 추대

현장보도 — 민중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선거인단 대회

'민중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선거인단 대회'가 지난 1일 잠실 올림픽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렸다.

전국지역 민중대통령후보 선거대책본부 및 학생선거대책본부 등의 조직별 사전결의대회를 가진 후 시작된 이번 대회는 '열림행사'와 '본대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오후 3시 30분 축하곡 연주와 함께 막을 올린 '열림행사'는 민중의 삶과 민중후보 추대의 의지를 담은 문화공연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민중들의 투쟁적 삶을 묘사한 김경란씨의 춤사위가 있은 후 '노래공장'의 '가자 민중후보와 함께 진보의 시대로'라는 주제의 노래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서울대 풍물패의 판굿이 15분간 진행된 후 지역별 조직들이 민중후보를 향해 결집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중앙및 지역선거운동본부의 '깃발 계양식'이 마지막 순서로 거행 되었다.

'열림행사'에 이어 가진 '본대회'는 유민영 서울 선거대책본부장의 개막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유민영 본부장은 개막선언을 통해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차별없이는 한순간도 존립할 수 없는 보수정치집단에 맞서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민중의례가 진행된 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산하 경기남부연합이종성 고문의 축사와 최윤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최은 위원장은 이날 후보선출대회를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으로 파악하고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거대한 보수화의 물결이 '92대선을 가진자들의 놀음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중후보를 범민주 단일후보로 추대하자"라고 촉구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핵심적 안건인 민중대통령후보 선출은 오세철 대회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종성 민선본 공동 대책본부장의 추천사가 있은후 인준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민중대통령후보로 추대된 백기완후보(통일문제연구소장)는 "역사가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민중이다. 비록 부족하지만 앞장서서 싸워나가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백후보는 현재의 민중후보운동의 필연성은 "세계적인 보수주의 물결과 맞서는 것"이라 규정짓고, 우리사회의 보수화와 보수정치세력의 대연합구도에 맞설 것을 주장하며 보수정치인들을 신랄히 비판했다.

또한 백후보는 조직적인 정치투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보정당의 창당'을 이번 대선속에서 이루자고 제의했다.

"이번 민중후보운동을 통해 민중의 잠재적 역량에 불을 당기자"라는 백후보의 연설을 끝으로 폐회를 알리는 축포가 터졌다.

〈안성모 記者〉

보수주의 물결과 맞서는 민중의 하나된 움직임

현장 취재 "가자! 민중대통령과 함께 민중의 시대로"

민중대통령후보 백기완.

지난1일 올림픽 사이클 경기장에서 열린 '민중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선거인단대회'에서 참가자 전원의 기립박수와 함성속에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씨가 대통령후보로 공식 추대됐다.

백기완후보는 "민중후보는 바로 민중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번 대통령선거 를 통해 "보수화로 물든 정치구도를 민중의 힘으로 무수고 정치적 변혁을 일궈내가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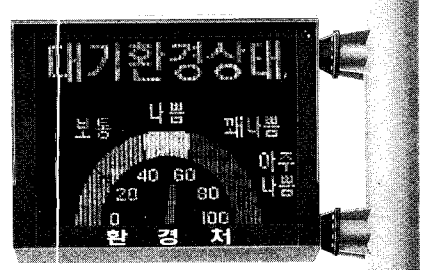
이날 대회에 참가한 1만여 선거인단 및 시민·학생들도 '보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보의 시대를 민중후보와 함께 나아갈 것'을 결의함으로써 실내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민중운동진영의 후보 공식추대와 더불어 대선투쟁의 획친 도약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물론 민중 스스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선다는 민중진영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드높이 부르며 대선 공간에서 적극적인 정치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1990년 7월 입사
마북리연구소 엔진설계부 설계 2과
이 주 한

이주한氏의
"지우고 싶은 대기 현황판"



출근길에 마주치는 대기현황판

어제 저녁, 6개월 만에 만난
대학 동창과의 한 잔 때문에
오늘 아침은 유난히 서둘러야만 했다.
통근버스가 시정앞을 스쳐갈 무렵,
여느날처럼 눈에 들어오는 대기현황판.
"현재의 대기환경상태 — 나쁨"

용인군 마북리의 상쾌함, 그리고…

복잡한 시내를 벗어난 통근버스는
용인, 마북리연구소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
이곳에서 나의 업무는 엔진설계와 제어부문…
그래서 매일 지나치는 대기현황판의 '나쁨'이란
글자가 머리속에 맴도는 것도 바로 자동차엔진과
관련된 나의업무 때문인지도 모른다.

린번엔진 개발성공, 그 짜릿한 희열이후…

입사 후 3개월. 나는 작은 출발을 시작했다.
대기공해를 줄이는 초저연비 린번엔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내가 한 일은 미미했지만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이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나쁨'을 가리키고 있던
대기현황판이 그때로 남아 있었다.

현황판 수치가 고쳐질 그날을 위하여…

출근길에 마주치면 늘 찜찜했던 현황판 수치.
하지만 이러한 나의 노력과 작은 보탬들이
하나둘 쌓여 빛을 발하게 되는 날,
거리의 많은 차들이 무공해 차량으로 바뀌고
대기현황판의 수치도 고쳐질 수 있으리라.

좋은 환경, 좋은 차
HD 現代自動車

창사 25주년 HYUNDAI 인간·지구에 꿈·행복을…③